



박기남 “나도 이적생 신화 쓰겠다”

KIA 타이거즈의 박기남이 ‘야속의 땅’ 포항에서 2010년의 활약을 기약하고 있다.

포항캠프에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박기남은 올 시즌 LG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이적생이다. 그러나 성실함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완벽한 KIA맨이 되면서 이적생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가 됐다.

박기남의 2009시즌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이 났다.

2008년 11월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소속팀 LG로 복귀한 박기남은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만큼 자신의 야구인생에서 가장 분주한 겨울을 보내며 봄을 기다렸지만 타석에 한 번 서지 못하고 트레이드 통보를 받았다.

‘마지막이다’는 각오로 열심히 시즌을 준비했던 박기남은 서러운 눈물과 함께 광주에 왔다.

하지만 박기남이 KIA맨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이 트레이드가 된 절친한 동료 김상현이 타석을 책임지는 동안 박기남은 내야를 오가며 ‘전천후 내야수’로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무엇보다 타아웃에서 보여주는 파이팅과 성실함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기남은 “낮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운동

을 시즌 초반 LG→KIA 트레이드…‘전천후 내야수’ 활약

포항서 맹훈 “절친 동료 김상현 처럼 내년엔 일내겠다”

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팀 분위기도 좋고, 팬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마음 편하게 제 2의 야구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서러운 눈물로 시작했던 2009시즌 마지막 날 박기남은 다신 한번 눈물을 흘렸다.

2009 한국시리즈 7차전, 단국대 후배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KIA의 우승이 확정되자 박기남은 그라운드에 눈물을 펄펄 쏟아내며 사람들을 울렸다. 한국시리즈 출근 벤치를 지켰지만 배팅부수를 자처하고 뜨거운 응원으로 덕아웃을 지켰던 박기남이었다.

박기남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여러가지 생각이 나면서 울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새동지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 박기남에게 2009년은 감동의 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다. 내야 백업요원으로만

적활약을 했지만 타격이 좋지 못했다.

박기남은 “시즌이 끝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황병일 코치가 계시는 포항에서 훈련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해 포항캠프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박기남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할 수 있는데다 친한 동료들과 함께 하는 만큼 포항캠프가 만족스럽다. 그러나 포항멤버인 내야수 김상현·이현곤·안치훈은 친한 동료이자 경쟁자이다. 2010시즌 본무대를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올 시즌 104경기에 나와 89타석에서 안타(12개)보다 더 많은 4사구(13개)를 얻어냈던 ‘선구안의 달인’ 박기남이 ‘타격의 달인’을 꿈꾸며 포항의 버림을 가르고 있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포항캠프 호랑이들

장애인들과의 만남

포항에서 자율훈련을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3일 시각장애인들과의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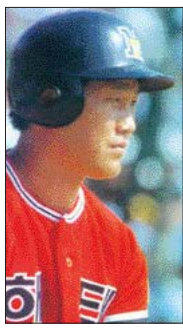
포항에 캠프를 꾸리고 훈련중인 KIA 이현곤·김상현·박기남·안치훈·나지완이 23일 오후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해 사인볼을 전달하고, 간단한 사인회를 연다. 시각장애인용 스포츠 장비들을 둘러보며 장애인스포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추진한 황병일 코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며, 선수들 스스로 자신의 훈련에 동기부여를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이번 방문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왕년의 4번 호랑이’ 박철우

日야구 한국인팀 지휘봉



왕년의 호랑이군단 4번 타자 박철우(45)가 내년 출범하는 일본 간사이 독립리그 한국인 야구팀의 초대 사령탑에 앉는다.

박 감독은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코리아 해치’를 맡아 팀을 지휘한다.

박 감독은 22일 “곧 팀 관계자와 만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논의한다. 독립리그인긴 하나 수준은 한국 아마추어보다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국 야구가 일본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987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박 감독은 1994년 쌍방울 레이더스로 옮겼고 1998년 은퇴했다. 1989년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를 차지하는 등 그해 타격 3위(타율 0.318), 홈런 5위(13개), 타점 7위(59개)에 올라 최고 전성기를 보였다.

2000년 SK 와이번스 코치로 지도자에 입문, 해태와 KIA에서 후배들에게 타격을 가르쳤고 광주 진흥고 감독을 맡아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최근 3년간은 고려대학교에서 인스트럭터로 활약했다.

박 감독은 “고려대 양승호 감독님의 도움으로 일본에 진출하게 됐다. 한 달 전에 감독 제안을 받았다”면서 “돈 주고도 외국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여서 흔쾌히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태권의 멋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대회 유소년·청소년부 경기에서 고양시 태권단 시범단이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MLB 양키스 부유세로만 300억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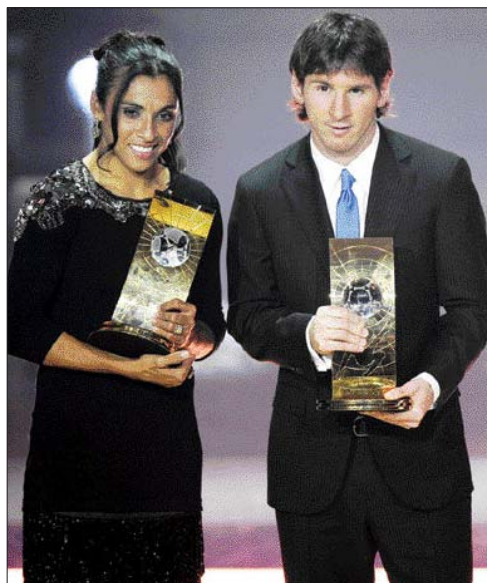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통산 27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뉴욕 양키스가 세금으로만 300억원을 낸다. AP통신은 22일(한국시간) 양키스가 올해 부유세로 2천569만달러(약305억원)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부유세는 특정 팀의 연봉 총액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정한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겨 이를 가난한 구단에 나눠주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연봉 총액이 메이저리그가 그해 제시한 액수를 한 번 넘어가면 해당 구단은 초과액의 17.5%를 세금으로 내고 2번이면 초과액의 30%를 부유세로 낸다. 3회 이상이면 40%를 세금으로 낸다.

올해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부유세를 내는 ‘부자구단’ 양키스는 7년 연속 부유세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브라질 대표팀의 마르타(왼쪽)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축구 ‘메시’ 전성시대

발롱도르이러 FIFA 올해의 선수

여자 선수로 브라질 ‘마르타’ 영예

한국 축구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마주쳐야 하는 ‘리틀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22·FC 바르셀로나)가 2008-2009시즌 맹활약을 앞세워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에 오르며 축구 최고상을 쓸어들었다.

메시는 22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레이저 갈라’에서 2009년 FIFA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됐다. 이 상이 제정된 1991년 이후 아르

헨타 출신의 수상자는 메시가 처음이다.

메시는 전 세계 147개 축구대표팀과 주장이 한 표씩을 던진 투표에서 총 1천47점을 얻어 352점에 그친 지난해 수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레알 마드리드)와 팀 동료인 사비 에르난데스(바르셀로나·196점)를 따돌리며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특히 메시는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와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에 이어 FIFA 올해의 선수까지 뽐내 유럽축구 최고상을 휩쓸었다. 메시는 지난 2008-2009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7경기에서 23골, 11어시스트와 함께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9골로 득

점왕을 차지하며 스페인 축구 사상 최초의 ‘트레블’(UEFA 챔피언스리그·정규리그·스페인국왕컵 우승 등 3관왕) 달성에 앞장섰다.

한편 FIFA 올해의 여자 선수로 브라질 대표팀의 간판인 ‘여자 펠레’ 마르타가 영예를 안았다.

또 베스트 11에는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존 테리(첼시), 네마냐 비디치, 파블로 에브라(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니 알베스,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 바르셀로나), 스티븐 제라드(리버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가 각각 선정됐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송정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여산점: 063-851-2422